

numbers 제 71호



주요 내용

2020. 11.13

1. 이번 주 주제 : [불법 도박 실태]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2.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국내 불법 도박 문제가 제기됐는데,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규모가 무려 81.5조 원 규모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세간에 이슈가 됐다.

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온라인 불법도박 규모가 67%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54.5조 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불법 도박 경험층을 분석해 보니, 정상적인 가정을 지닌 고학력, 화이트칼라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들도 재정적인 문제, 가족 등 주변 인들과 관계 문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 중 31%는 중독되어 끊기가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특히 불법 도박 경험자 중들 개신교인이 16%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71호는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실태를 알아보고 이와 함께 국민들이 복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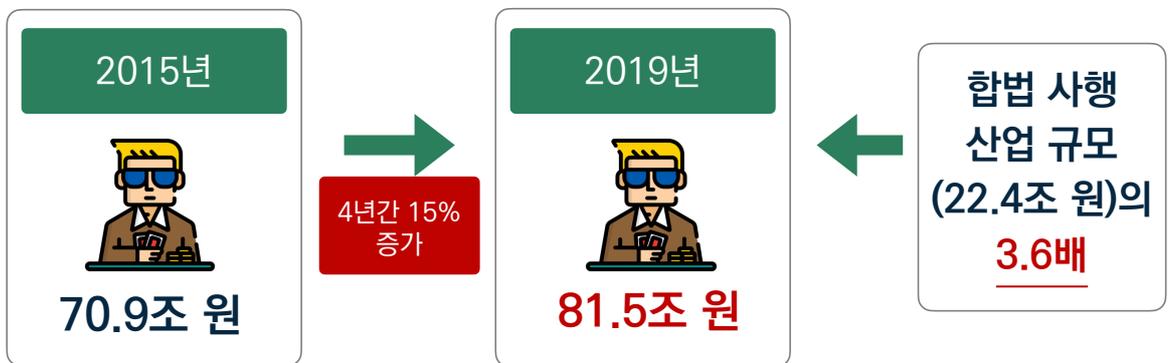
1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국가 예산의 17% 수준, 2019년 기준)

-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규모는 2019년 기준 81.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가 전체 예산(469.6조 원)의 17%에 맞먹는 수준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 어마한 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실정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 이는 합법 사행 산업 22.4조 원(2018년 기준)의 3.6배에 달하는 규모임

[그림] 국내 불법 도박 규모 추이(2015 v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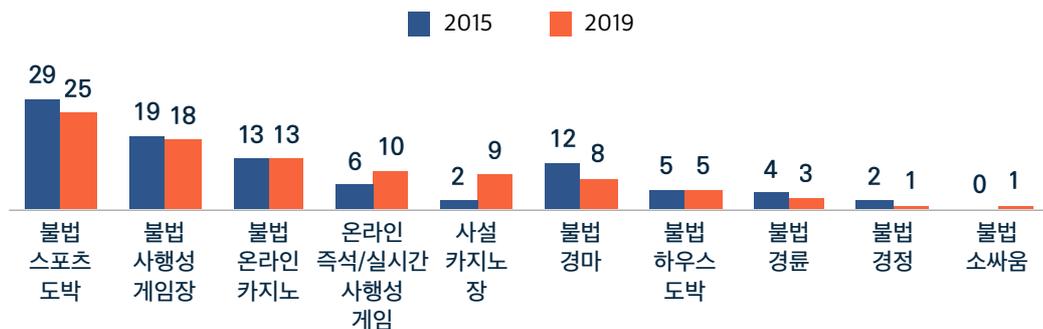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 자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도자료, '불법 도박 규모 81.5조 원으로 추정(2018년 기준)', 2020.04.23

● 종목별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규모가 크며, 전체 불법 도박의 25%를 차지함

- 불법 도박을 종목별로 살펴보면(2019년 기준), '불법 스포츠 도박'이 25%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 게임'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불법 도박 종목별 점유율(2015 vs 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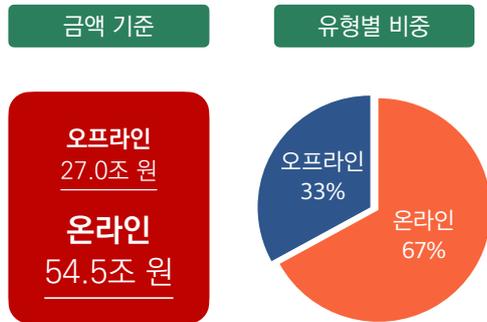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 온라인 불법 도박 규모 : 전체의 67% 차지

- 불법 도박 시장은 온라인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이 54.5조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함

[그림] 불법 도박 시장 규모(2019년)



[그림] 온라인 불법 도박의 종목별 점유율 (%)



*자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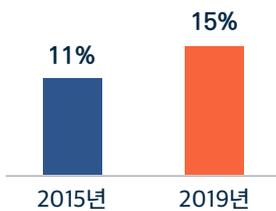
2



1년간 불법 도박 경험율, 전 국민의 15%

- 지난 1년간 일반 국민의 불법 도박 경험율(2019년)은 15%로 조사됐으며, 2015년 11%보다 4%포인트 증가함

[그림] 1년간 불법 도박 경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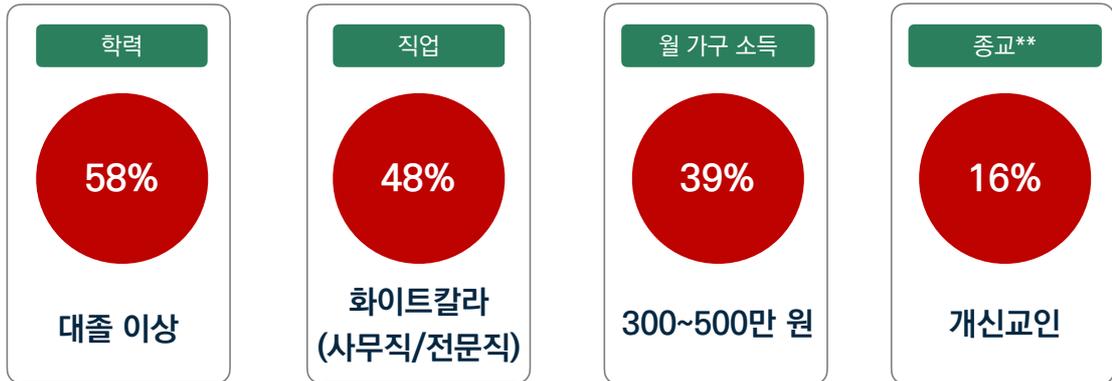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 주된 불법 도박 경험자 :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고학력/화이트칼라층’

- 불법 도박 경험자를 인구 특성별로 분석해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층’(5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층’(48%), 혼인 상태는 ‘기혼자’(63%), 월 가구 소득은 ‘300~500만 원’ 수준의 중간층(39%)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중산층의 고학력/화이트칼라층’이 불법 도박의 주된 이용자층임
- 종교별로 개신교인의 16%가 불법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2015년 제 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그림] 주된 불법 도박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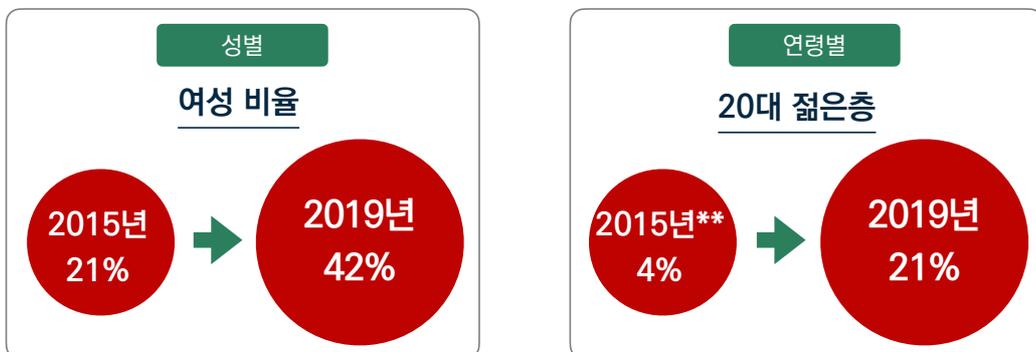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자료 출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16.07.08.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700명, 불법도박 경험자 300, 온라인 조사, 2015.11.25. ~ 2016.5.23.)

● 불법 도박 경험자, 4년 사이 저연령층과 여성층 크게 증가!

- 불법 도박 경험자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5년 이후 여성층과 20대 젊은층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여성은 2015년 21%에서 2019년 42%로 무려 두 배나 증가했고, 연령별로도 2015년 20대 연령대가 4%에서 2019년 21%로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 중 전업주부 층이 전체 불법 도박 경험자의 9%나 되는 점이 눈에 띄어(2015년 3%→ 2019년 9%)

[그림] 불법 도박층 성/연령 분포(2015년 vs 2019년)



*자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2015년은 만 15~29세까지 수치임

3



불법 도박 참여 동기 1위, '기분 전환' 25%

- 불법 도박의 참여 동기는 '기분 전환'이 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목 도모' 21%, '금전적 이유' 1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돈 이외에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기분 전환 또한 사람들과의 친목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응답함

[그림] 불법 도박 참여 동기 (%)



*자료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된 가장 큰 계기 1위, '친구/지인 추천'(46%)

-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친구/지인 추천'이 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고' 22%, '합법 게임의 연관 루트 통해' 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된 가장 큰 계기(상위 4위) (%)



*자료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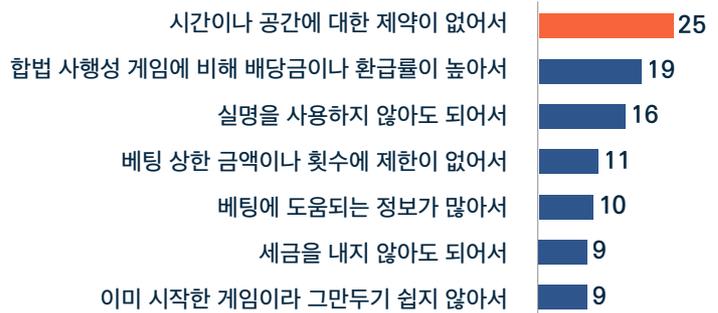
● 불법 도박 경험자, ‘불법인줄 알면서 도박했다’ 46%

- 불법 도박에 참여할 때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한 비율은 불법 도박 경험자의 46%에 달함
- 불법인지 알면서 참여한 이유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가 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합법 사행성 게임에 비해 배당금이나 환급률이 높아서’ 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앞에서의 참여 동기로서 기분 전환이 높았는데, 기분 전환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이 불법 도박 접점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불법 도박 참여 시 불법성 인지 여부



[그림] 불법 도박임을 알고도 참여한 이유(중복 응답)



*자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4



불법 도박 경험자 10명 중 3명, 도박의 중독성으로 ‘끊기 어렵다’

- ‘사행성 게임을 그만하고 싶어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불법 도박 경험자의 31%가 ‘그렇다’고 응답해, 10명 중 3명 가량은 불법 도박에 중독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사행성 게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속성을 질문하였는데, 공부/업무, 주변인들과의 관계, 재정적 도움 측면에서 사행성 게임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사행성 게임의 중독성**



[그림] 사행성 게임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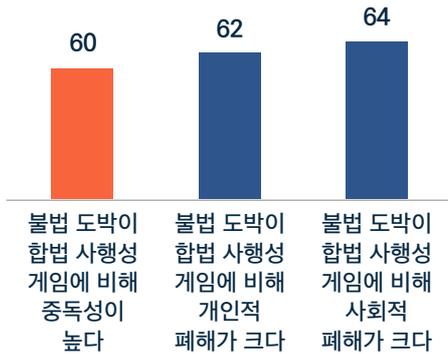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 불법 도박 경험자, 불법 도박의 폐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편!

- 불법 도박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의 폐해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합법 사행성 게임에 비해 중독성이 높다' 60%, '합법 사행성 게임에 비해 개인적 폐해가 크다' 62%, '합법 사행성 게임에 비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 64%로, 대체로 5명 중 3명 이상은 불법 도박을 경험해 보니 폐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불법 도박의 폐해에 대한 의견(5점 척도, 긍정률) (%)



*자료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2020.04.2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 개별 면접법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9.09.23.~10.31.)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팀은 이번 호에서 우리나라의 불법도박실태를 살펴보면서 우리 국민의 복권에 대한 인식까지 알아보았다. 다음은 복권 관련 몇 가지 통계 자료이다.

5



국내 온라인 복권 시장, 2019년 4.3조 원 규모로 지난 10년 간 87% 증가!

- 우리나라 온라인 복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2009년 2.3조 원에서 2019년 4.3조 원으로 지난 10년 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온라인 복권 연도별 판매액 추이(2009~2019년)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okgwon.go.kr/>), 복권 관련 통계

● 우리 국민의 63%, 지난 1년간 ‘복권 구입한 적 있다’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2019년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복권 구입률을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가까이(63%)가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56%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 복권’이 62%로 단연 1위이고, 다음으로 ‘연금 복권’ 10%, ‘즉석 복권’ 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지난 1년간 복권 구입 경험률(2018 vs 2019) (%)



[그림] 복권별 구입률(1년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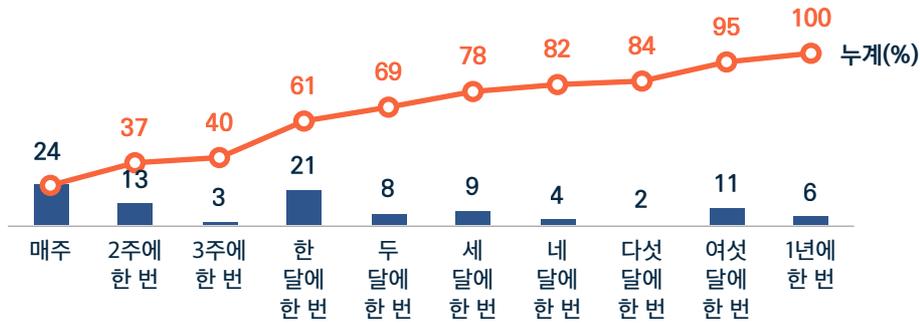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9년 복권관련인식’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 2019.11.01.~12.06)

● 로또 복권 구입자 4명 중 1명, '매주 구입한다'

- 지난 1년간 로또 복권 구입자에게 구입 빈도를 질문한 결과, '매주 구입' 24%, '2주에 1번' 13%, '3주에 1번' 3%, '1달에 1번' 21% 등으로 5명 중 3명(61%)은 월 1회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명 중 1명은 매주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로또 복권 구입 빈도(지난 1년간 로또복권 구입 경험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9년 복권관련인식'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 2019.11.01.~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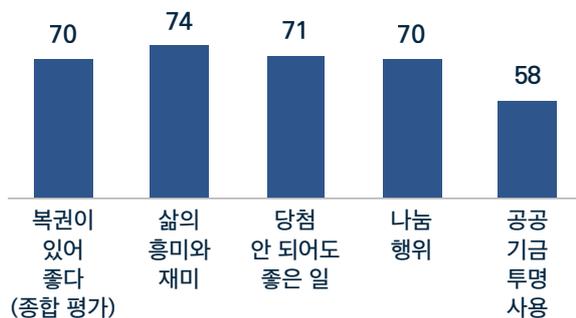
6



국민 10명 중 7명, '복권이 있어 좋다!'

- 일반 국민에게 복권에 대한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공감도를 물어본 결과, '삶의 흥미와 재미' 74%, '당첨 안 되어도 좋은 일' 71%, '나눔 행위' 70%, '공공기금 투병 사용' 58% 등의 공감도를 나타냈으며, 종합적으로 '복권이 있어 좋다'는 인식은 70%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은 복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복권에 대한 인식('공감한다' %)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9년 복권관련인식'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 2019.11.01.~12.06)



시사점

도박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불법 도박의 규모가 2019년 기준 81.5조 원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 규모는 국가 예산의 17%에 맞먹는 수준이다. 게다가 도박 규모가 2015년에 비해 15%나 증가하였으며(3쪽 참조), 전 국민의 불법 도박 경험율도 2015년의 11%보다 4%p나 증가한 15%가 될 정도로 불법 도박을 경험한 국민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4쪽 참조) 더 심각한 것은 여성과 20대 젊은 층에게 불법 도박이 급속히 침투한다는 점이다.(5쪽 참조)

도박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박 중독은 기본적으로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도박에서 승리하면 사람의 뇌에서는 엔돌핀, 도파민 등 뇌내 마약이라 불리는 물질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행복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로써 뇌가 이 물질이 주는 쾌락을 느끼게 되면 뇌는 이 물질을 계속 분비하려고 도박을 하도록 신경계에 지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박에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중독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생물학적 이유 외에 도박이 늘어나는 심리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좌절감이나 과도한 부담감,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리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도 도박을 포함한 여러 중독에 빠지기 쉽다. 특정 물질(담배, 마약 등)이나 행동(도박, 게임 등) 중독에 빠지면 그 순간에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 있다. <중독의 시대>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코트라이트는 이 책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 단순히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박을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도박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IT 산업의 발전 때문이다. 데이비드 코트라이트는 도박과 같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데에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마약을 하고 싶어도 마약을 구하지 못하면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없고, 도박을 하고 싶어도 도박장을 모르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IT 산업의 발전으로 굳이 도박장을 찾아가지 않고 PC 앞에만 앉으면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쉬운 접근성 때문에 온라인 도박이 오프라인 도박을 2배나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4쪽 참조) 20대와 여성이 도박을 하는 비율이 늘어난 데에는 '접근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은밀하게 도박장을 찾아 가거나 남의 눈을 피해 모여서 도박을 할 필요가 없어 죄책감을 덜 느낀다. 그래서 도박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도박 중독은 희망없는 시대의 징표이다. 일확천금을 위해, 현실도피를 위해 도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이 암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하는 것은 현실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박에 발을 들여 놓으면 도박이 주는 쾌감, 무아지경, 무념무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늪에 빠진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까지도 16%나 이 같은 불법도박 경험이 있는 것을 보면 도박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도박, 마약, 섹스, 권력, 돈 등과 같은 것에 중독되어 거기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는다. 희망없는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룬 불법 도박 경험자의 30% 정도는 그 중독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소망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나라 복음을 통해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따라 현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도록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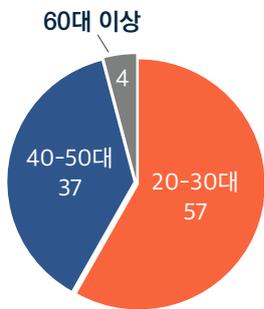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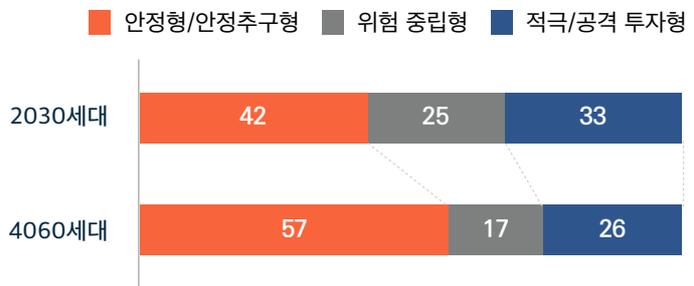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 이란 말이 유행이듯 요즘 개인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6개 증권사의 올해 신규 주식 계좌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30세대가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세대별 투자 성향을 살펴보면, '2030세대'와 '4050세대' 두 그룹 모두 '안정형/안정 추구형'이 높으나 2030세대는 '적극/공격 투자형', 4060세대는 '안정형/안정 추구형'이 상대적으로 각각 높은 특징이 나타남
- 주식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경우 빚투/영끌로 대변되는 203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투자 손실이 우려됨

[그림] 올해 신규 주식 계좌 연령대별 비중(6개 증권사**) (%)



[그림] 주식 투자 성향(2030 세대 vs 4060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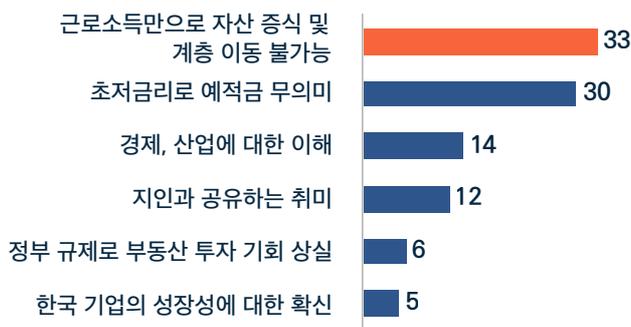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월 200만원 모아 집 살 수 있나?...절박함이 부른 주식투자, 2020.09.14.(전국 남녀 20-30대 5,757명, 4060세대 7,000명),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91346211>

** 6개 증권사 :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투자증권, 키움증권

● 2030세대의 주식 투자 동기 1위,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증식/계층 이동 불가능'

- 2030세대의 주식 투자 동기로는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증식 및 계층 이동 불가능'이 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저금리로 예적금 무의미' 30%, '경제, 산업에 대한 이해' 14% 등의 순으로 응답함
- 특히 2030세대의 76%가 '근로소득의 시대는 끝났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경제적 양극화의 고착화와 장기적 저성장 시대, 연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2030세대에게는 마지막 자산 증식 수단이 '주식'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030세대의 주식 투자 동기(복수 응답) (%)



[그림] 20-30세대의 '근로소득의 시대는 끝났다' 동의율 (%)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100만원 다 잃어도 상관없다 ... 2030세대 놀라운 투자법', 2020.09.14(전국 남녀 20-30대 5,757명, 4060세대 7,000명)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91345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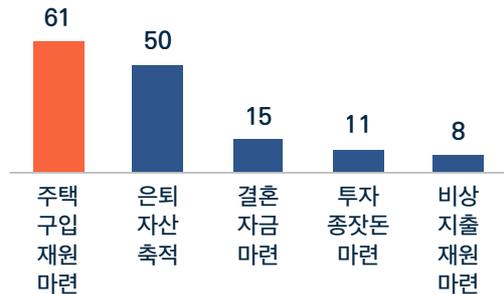
● 2030세대, 주식 투자로 번 돈 사용처 1위, '생활비' 35%

- 주식 투자로 번 돈의 희망 사용처를 질문한 결과, '생활비'가 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택 구입비' 24%, '은퇴 자산' 24%, '사치성 소비' 12%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삶에서의 재무적 목표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자원 마련'을 61%로 가장 높게 응답함
- 특히 앞에서의 두가지 질문에 각각 '은퇴 자산' 항목을 높게 응답했는데, 이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2030세대의 반응으로 보임

[그림] 2030세대 주식 투자로 번 돈의 희망 사용처 (복수 응답) (%)



[그림] 2030세대의 재무적 목표 우선 순위(상위 5위, 700명 설문, 3순위까지 응답) (%)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막자 놓친 2030...주식은 생존수단', 2020.09.13(20-30대, 전국 남녀, 5,757명)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91346211>

● 2030세대 베스트셀러, '에세이'에서 '투자서'로 이동, 올 8월 2030세대 베스트셀러 1위 '돈의 속성'

- 지난 수년간 베스트셀러 상위은 '힐링', '위로' 분야 서적이, 최근 2-3년 간은 자기개발 에세이가 상위권에 위치했는데, 올해는 경제경영서가 상위권에 위치함
- 교보문고 8월 베스트셀러 1위는 '돈의 속성', 2위는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3위가 '부의 대이동'으로 톱 3가 모두 '돈 버는 법'과 관련한 책임 (%)
- 주식 관련 유튜브 또한 채널 구독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1위 '신사임당'(구독자 100만 명), 2위 '슈카월드'(85 만명). 3위 '삼프로TV경제의신과함께'(72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30세대의 주식 투자를 단순히 주식 열풍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판단하기보다, 사회경제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는데, 계층 간 이동 불가능, 빈부격차 심화, 초 저성장 시대, 코로나19 경제 위기, 고령화시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올 8월 2030세대 베스트셀러(교보문고 순위, 상위 7위)

순위	책 제목
1위	돈의 속성
2위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3위	부의 대이동
4위	살고 싶다는 농담
5위	더 해빙
6위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7위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그림] 주식 관련 유튜브 인기 채널 구독자 수 (8월 기준) (만 명)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돈 버는 법 제대로 배워보자"...'올로' 외치던 2030이 변했다', 2020.09.15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9153258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회
일반
/
코로나
19

[인구감소·고령화 직면한 '빛장도시' 서울... 천국과 지옥 갈림길](#)

한국일보_2020.10.07.

[1인가구 600만 시대 "은퇴하면 월 123만원 필요... 실제 저축은 74만원 뿐"](#)

조선일보_2020.11.08.

[자살 통계](#)

중앙일보_2020.11.12.

[코로나19 장기화에...국민우려 1순위 경제불평등·2순위 종교갈등](#)

연합뉴스_2020.11.05.

[저출산에 한숨, 코로나에 눈물... 동네 소아과-유치원 "더는 못버텨"](#)

동아일보_2020.11.11.

경제

[청년 체감 실업률 24.4%, 2000년 이후 최고](#)

동아일보_2020.11.12.

[하나투어 -94.5% 모두투어 -95.8%...여행업계 "이대로는 전멸 불가피"](#)

뉴스1_2020.11.10.

[코로나가 불러온 업종별 양극화](#)

조선일보_2020.11.10.

[코로나 CHANGE 두려워 말라...인재는 CHANCE 더 많아졌다](#)

매일경제_2020.11.12.

큐
레
이
션

[미국 갤럽연구소의 세계 최초 미래 행복보고서 『웰빙 파인더』](#)

뉴스포털1_2020.11.11.

[국가 차원의 세심한 교육 없으면 디지털 소외 심각해져](#)

중앙일보_2020.11.09.

[인구급변 대비할 마지막 10년...신중년 활약할 길 터야](#)

한겨레_2020.11.09.

[주방보조·운전 등 단순 업무, 로봇이 인간 자리를 호시탐탐](#)

조선일보_2020.11.09.

넘버즈 칼럼

기독교인의 충성을 통째로 드리는 나라

문장환 목사
진주삼일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세계의 가장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는데,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제1의 대국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확장해 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이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고, 때로는 모본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미국의 민낯은 정말 낯설었고, 이번 선거의 모습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체제나 제도가 있어도 거기에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누가 그것을 작동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땅의 이념과 사상과 체제와 제도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에, 늘 논쟁이 일고 투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들을 절대화하는 일은 극구 피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다. 하나님나라의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그 어떤 이념이나 정당에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는 없다. 좌와 우 혹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중도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건들에서 너무 희망을 갖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비록 트럼프로 인해 많이 훼손되었지만, 공화당은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동성애나 낙태 문제 같은 경우에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였다. 반면에 민주당은 여러가지 차별을 철폐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꺼안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민, 인종, 종교, 성차별 같은 문제에서 나름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 바이든의 집권은 인종차별 등 어떤 문제들에서는 희망적이고, 동성애 등 어떤 문제들에서는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경제, 외교, 국방 등은 동맹의 복원으로 나아질 것이고, 반면에 남북관계나 한중관계의 경색을 가져올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바이든의 당선을 기독교인으로 전적으로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고, 한국인으로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사안에 따라 호기를 놓치지 말고, 위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다. 어떤 체제나 제도, 이념이나 정당은 장점도 단점도, 강점도 약점도, 기독교에 호의적 측면도 적대적 측면도 존재한다. 그런데 자기 진영에서 지키려는 가치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상대 진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충성을 통째로 어떤 정당에 바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 요즘 부모 욕해도 가만히 있지만 정당 욕하면 밥상 엎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욕해도 가만히 있지만 정당 욕하면 밥상 엎는다는 말이 나올까 무섭다. 우리가 다 생각의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에 이념의 우상화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심하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충성을 통째로 정당에 바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사안별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적어도 한쪽 편은 모조리 못된 짓을 하고, 한쪽 편은 모조리 올바른 것을 한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세상에는 그런 존재는 없다. 아마 각각의 정책의 근거에는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것으로 행동이나 정책을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5:37). 옳고 그른 것을 단순히 말해야지 맹세까지 해가면서 경박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의 할 것은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거나,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다.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악이다. 또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도 악이다.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기 위해,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기 위해 지나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모든 것을 통째로 판단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판단을 할 때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단순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신앙 양심과 신앙 상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야 한다. 곧 성경의 명령과 법으로 또한 성경이 주는 원리와 가치로 단순하게 판단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성경적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생각하고 아니라면 아닌 줄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절대화, 이상화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극한 대립을 중재하는 대화를 시도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의 충성을 통째로 드러야 할 나라는 하나님나라 밖에 없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70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과천제일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